

시론

총체적 난국인가

한국사회는 지금 IMF경제난국'에 직면하여 지난 30여년간 '성장 제일주의'의 가치하에 앞만 보며 달려온 오해의 동굴에 누적된 '거품'들을 일거에 걷어내는 데 따르는 진통을 겪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하며 군살빼기를 단행함에 따라 '무차별 도산'과 '대량 실업·실직' 사태의 악순환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가 고등분담의 대원칙을 내걸고 대안모색에 부심하고 있지만 이해집단간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아 소리만 무성할 뿐 사태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속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프랑스 월드컵 축구경기'에 밤잠을 설쳐가며 열혈팬이었던 일이나, 박세리선수의 골프경기 선전에 환호적이라 하면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은 모두가 IMF 난국의 음울한 심경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IMF 암흑터널 식물국회 신창원신드롬 도덕불감증 온통 어둠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국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국민적 의식세계에 석연찮은 구석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이어 참패했다고 해서 애들하고 울분해하는 정도를 넘어 감동을 즉각 귀국조치하는 단세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낯뜨거운 의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문자 그대로 '병자지상사' 이라니, 하물며 대진 상대가 4강권에 진입할 정도의 강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승전을 기대하는 오히려 요행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탈옥수 신창원의 신출귀몰한 탈주행각을 두고 흥겨움과 동시하거나 영웅시하는 '신창원신드롬'이 항간에 상당히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성숙된 의식세계와는 동떨어진 현상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작업은 실로 총체적

인 것이다. IMF난국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관행·의식상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조정된 우리사회의 각 부분이 재할당되기 위한 통합적 예지의 결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세계를 합리화하여 국제적 표준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도록 의식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은 IMF 이후 위험수위에 이른 우리 사회의 도

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하루속히 치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위기현상을 드러내게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난국이 심화된 최근에서 이르러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집단간의 조정기능이나 민생기능을 도외시한 채 당리당락에만 집착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난국해결을 위한 법적 제 뒷받침을 서둘러야 할 본연의 기능을 제쳐둔 '식물국회'도 IMF 극복의 발목을 잡는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퇴출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의 재물 챙기기와 일부 기업의 고의부도로 인한 신용질서의 붕괴이다. 대승적인 사태수습보다는 재물 챙기기에만 급급한 양상은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현상은 비단 이해관계가 직접 결부되어 있는 경제나 정치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교육·문화분야까지 만연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총체적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모두가 재물 챙기기에만 몰두하다가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공멸하고 만다. 모두가 경성상으로 돌아가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공개토론회 21세기 승가상 정립과 강원 의 위상과 역할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는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중현)의 주최로 '21세기 승가상 정립과 그 속에서의 강원 의 위상과 역할'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다가오는 새 시대를 앞두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2백여명의 스님들이 한국불교 수행자 양성의 오랜 전통을 지닌 강원(지방승가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21세기 승가의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공개토론회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24일 토론회에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 강원 의 2백여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승가존재 본질 깨달음의 사회화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

승가의 위상은 그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선행할 때 높아질 것이다. 개인 이기나 승단의 이기를 위해서 존재할 때는 승가 본연의 깨어남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결국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수행은 승가가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출세간적인 성스러운 길을 가는 청정 승가로서 깨어나는, 그래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본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사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바라는 원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적 생각에 의한 승가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도적인 세속화와 재정의 왜곡된 흐름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도덕적으로 세속화를 막아야겠지만 제도적으로도 승가 본연의 계율정신으로 청정 승가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세속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과거 방법 그대로 교화에 나섰을 때는 중생들에게 접근이 어려울 것이다. 미래는 능력 위주의 다양화된 사회이므로 사부대중도 그 기능에 따라 다양화 된 중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한국승가가 정리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고, 이는 21세기 승가의 역할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

강원은 수행·교육 공동체 기틀

지운 (송광사 강원 강주)

전통강원은 교육과 수행이 하나로 연결된 이상적 수행처다. 따라서 전통강원의 위상이 정립되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때 21세기의 미래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승가상의 바른 위상도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 일각에서는 강원을 대학으로 바꾸어야 하며 국가인정의 학교로 등록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은 대학과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교육과 수행, 사원생활 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사원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강원은 존재하는 것이다. 대학과 강원은 그 성격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견제하는 선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불교와 종단을 책임질 인재양성의 근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의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전통강원과 현대의 대학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승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므로 앞으로의 논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승가공동체의 최상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지운 (송광사 강원 강주)

한문위주 교과목 재검토

명법 (운문사 강원 사교반)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등으로 구성된 강원 의 교과목은 선종의 종파적 관점에 치우쳐 체계적 불교 이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전통교과체계의 뛰어난 측면이기도 하다. 전통의 기반위에서 기초교리 이해와 불교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교과목을 추가해 점차로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전통강원의 교육내용은 경전학습을 통한 해(解)의 증진과 대중생활을 통한 행(行)의 실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간경의 경우 한문학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내용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많다. 한문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부분적으로 한글경전을 사용하는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생활과 습의에 있어서는 의적 강제보다 내적 동인을 불러일으키야하며 그것을 위해 계율정신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전통과 현대, 세간과 출세간, 내용과 형식이라는 양극단을 중도로 융합해내는 것이 우리시대 불교의 과제이며 전통강원이 떠맡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명법 (운문사 강원 사교반)

명확한 출가동기구현 급선무

송위지 (외국어대 철학과 교수)

한국불교 승가상은 첫째, 명확한 출가동기의 구현이 급선무다. 출가 동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승속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 둘째, 승단은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승단 내부에서 세속적인 적이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정화해야 하고 또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승려는 수행자다운 면모를 통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넷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는 승속의 차별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되어 이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승단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일들을 신도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승단은 신도를 대해야 한다. 재가포교사 제도의 발달, 우수한 재가 학자들의 꾸준한 배출로 인한 교화에 대한 승속의 분절화, 각종 의식의 재편으로 승단의 입지 약화 같은 상황이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 새로운 승가상의 모색은 불법의 본질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범위내에서 승단은 물론 재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양화되고 인지가 발달한 현세상에서 재가자들은 진정한 수행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송위지 (외국어대 철학과 교수)

토론 주요내용

'학문수행 양쪽 만족 현실적으로 어려워 강원 의 특수성 살려야'

효림스님(보광사 주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강원 의 과연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은 각 종파별로 대학을 설립, 현대교육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학문중심의 불교 발달에 주력한 나머지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뒤떨어졌다"고 지운스님(일본 에히메대학원 박사과정)은 말했다. 송위지교수는 "스리랑카의 경우 우리의 강원과 같은 परि레나를 졸업하면 대학과 대학원 입학해 학력을 인정받는다. 또 외국대학에 입학할때에도 적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옥스님은 "전통강원교육을 무시하고 현대적인 측면만 강조할 경우 일본처럼 학문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수행은 퇴색하는 문제가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운스님은 "강원은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닌 지혜와 수행을 쌓아가는 전통 교육기관임을 간파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불교의 토대에 맞는 강원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명법스님은 "명확한 세계관 확립을 위해 역사적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해 줄 교과목의 체계적인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운스님은 "전통강원에서 기본교육과 사회교육 등 2가지를 다 성취시키는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전통강원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이 서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각 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맞는 교과과정을 확립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법장스님(수덕사 주지, 강원연합 상임고문)은 "중앙승가대학은 타종교의 신학대학과 같은 역할을, 전통강원은 보다 심도있는 학문을 배우는 대학원의 역할로 정립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Advertisement for 'Wu' (玉) health products. Title: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Text: 玉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출된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들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베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여야 승계가 걸립니다. Contact: (02)777-0105 (백옥)

Advertisement for 'Jin Tang Art' (金堂藝建). Title: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탕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Text: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Contact: (053)639-0407 ~ 8, FAX: (053)639-0407

Advertisement for 'Ban Ya Shim Gyeong' (반야심경). Title: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Text: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Contact: (02)242-0331, 242-0255, (02)216-0307

Advertisement for 'Piramit Hiran-ya' (피라미트 히란야). Title: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미트 히란야! Text: 우주명품 피라미트 히란야. Contact: TEL. 792-0960, 0966